

# 10강 돈 그리고 은혜의 황금 사슬(고후 8:1~9:15)

(읽을 말씀: 9:6~15)

## 오늘의 포인트

- 돈에 대한 성경적 사고를 배우라.
- 돈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라.
- 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깨달으라.

## 은혜와 돈(8:1~15)

### 문맥과 배경

- 드디어 바울 사도는 담대한 어조로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본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.
- 1년 전쯤 고린도교회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모금을 시작했었다(8:10).
- 그러나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과 오해 등이 일어나면서 이 모금도 시들해지고 말았다.
- 그러나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마쳐야만 할 일이었을 뿐 아니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시금석이었다.
-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의 참된 열매를, 이 연보로써 보이라고 말한다.

### 케이스 스터디 1: 마게도냐 교회(1~8)

- 마게도냐 교회들은 누구인가?
  - 마게도냐 지방—베레아 교회, 데살로니가 교회, 빌립보 교회 등
  -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아마 빌립보 교회일 것이다.
  -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사역을 열심히 후원하는 교회였다(빌 1:5; 4:15~19).
  - ‘마게도냐 교회들’—빌립보 안에도 많은 가정교회들이 존재했을 것이다.
- 바울 사도의 자랑의 핵심
  -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니라,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
  - 마게도냐 교회들의 탁월함이 아니라,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

### 은혜의 역설(8:2)

- 환난의 많은 시련 → 넘치는 기쁨
- 극한 가난 → 풍성한 연보

정상적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

환난의 많은 시련 → 넘치는 슬픔

극한 가난 → 찌질한 연보

역설을 이해하는 열쇠—은혜(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)

“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.”(마틴 로이드존스)

= “그리스도인은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.”

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었고 은혜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었다.

---

## 한국교회 역사의 초기 이야기들 — “하나님께서 한국교회들에게 주신 은혜”

- 1912년 중국으로 선교사 파송(박태로, 김영훈, 사병순선교사)
  - 일제에 의한 강점(1910년)과 탄압 속에서 1912년 중국 산둥성으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장로교회
  - 이 일을 위해 부지런히 헌금했던 그 가난했던 성도들
  - 그들 안에서 누렸던 기쁨의 넘침
- 1955년 태국으로 선교사 파송(최찬영, 김순일선교사)
  - 육이오전쟁이 끝난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장로교회

## 은혜가 한 일 — “은혜는 일한다”

- 은혜는 마음에만 머무르다 끝나지 않는다.
-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.
- 은혜는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발휘한다.
- 은혜는 환난을 견디게 한다.
- 은혜는 자기 너머의 사람, 자기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한다.
- 은혜는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적 성향을 넘어서게 한다.
- 은혜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한다.
-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서신서에서 ‘은혜’를 제거하라.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.
- 바울 사도의 고백:  
(고전 15:10a) “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”
-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: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은 없다.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다.
- 돈이 일하지 않고 은혜가 일한다.
  - 선교, 구제, 건축..

---

## 관점의 문제 — 은혜는 관점을 바꾼다.

### (8:4)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

- “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”
  -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연보를 ‘은혜’라고 여겼다.
  - 헌금하는 것을 ‘은혜’라고 보았다.
  - NIV는 은혜를 ‘특권(privilege)’이라고 번역했다.
- 세상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의 차이
  - [세상] 받는 자가 받는 혜택을 특권과 은혜로 여기고,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.
  - [은혜] 주는 자가 그 주는 행위를 특권과 은혜로 여긴다.
  - [세상]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간청한다.

- [은혜]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연보를 은혜와 특권으로 여겼기에, 자신들의 연보를 받아주기를 바울 사도에게 간청했다.
  - ‘(간절히) 구하니’ = begging(ESV, NASB, RSV, NLT) —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간청

(8:3)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**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**

→”그들은 제 폰수대로만 희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희사까지도 했습니다.”(공동번역)

(8:5)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**자신을**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

‘우리가 바라던 것’ = 돈

그들은 돈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!

헌금(獻金)이 아니라 헌신(獻身)이다!

바울이나 예루살렘 교회에게 준 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!

## 케이스 스터디 2: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(8:9)

(8:9)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

-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 단순히 “예수 그리스도”가 아니라 “예수 그리스도의 은혜”를 말한다.
  -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.
  -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.
-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
  -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는 이 땅의 저주를 면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갈 특권을 얻었다.
  - 주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사랑 안에서 나타났다.
  - 주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한다.

## 고린도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기대

-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대사항을 알리는 바울 사도
- 고린도교회는 빌립보교회에 비하면 부유한 교회였다.
- 극히 가난한 빌립보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.
- 이제 너희 고린도교회는?

## 은혜와 명령 사이(6~8; 10~11)

(8:6)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

- “디도로 인하여 시작된 ‘은혜’를 성취하라”
  -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모금(연보)을 완수하라.
  - 모금이 아니라 은혜를 완수하라.

(8:7)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

- 은혜에서도 풍성하게 하라 → 은혜에서도 ‘뛰어남을 보이라(excel).’

(8:8)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

- 명령이 아니라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테스트하고 싶다.
- 명령은 자원함에 속한 은혜와 사랑의 증명으로서의 연보가 될 수 없게 한다.
- 주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은 아니다.

(8:11)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

- 이것은 바울 사도의 명령이다!
- 원리—“있는 대로 하라.”
- 마게도냐교회들처럼 “힘에 지나도록 하라”고 말할수 있었지만, 이것이 명령이 된다면 자원함의 원리를 그르치게 된다.
- 균형—명령과 은혜 사이
  - “있는 대로” 과 “힘에 지나도록” 사이에서

### 십일조 문제

- 은혜와 균형을 잃어버릴 때
  - 신약시대에도 십일조는 신자가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명령인가?
  -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일조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마는,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와 같이 십일조를 내라는 구체적 명령은 없다.
- 인색한 마음(은혜받지 못한 마음)에서 나오는 문제제기
  - 십일조가 명령인가?
  - 십일조를 세금 떼기 전에 계산하느냐 세금떼고 난 후에 계산하느냐?
- 은혜가 충만할 때
  -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는 최소한의 선이라고 생각한다.
  -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린다.
  - 드리는 사람의 영혼에 유익하다.

**동기와 행동 사이(10~12): 양(quantity)은 변화된 마음의 질(quality)에 비례한다.**

(8:11~12)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

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‘할 마음’(willingness)이지 ‘양’(quantity)이 아니다.

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‘원함’(desire)이 있어서 시작한 이 일을 원하는 마음으로 마쳐야 한다. 동기와 행동 사이의 균형—‘양(quantity)은 변화된 마음의 질(quality)에 비례한다.’

## 사도의 마음(13~14): 평균하게 함은 성도 간의 일방통행을 권장하지 않는다.

(8:13~14)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**균등하게 하려 함이니**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**균등하게 하려 함이라**

- ‘온 교회’(보편교회)를 향한 관점—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 안의 형제들이다.
- 일방통행은 없다.
  -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(롬 15:27)  
(롬 15:27)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
  - 목사와 교인의 관계
  -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
  - 선교사와 선교지 주민들 간의 관계

## 하나님의 ‘은혜로운’ 마음(15)

(8:15)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

-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
  - 출 16:18을 인용—만나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은이나 부족함이 없었다!
  -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하다(고후 12:9).
- (잠 11:24) **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**

## 은혜의 황금 사슬(8:16~9:15)

주제—돈, 연보, 주는 것(베푸는 것) 그리고 세 사람을 고린도교회에 파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

##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동기(8:16~24)

## 디도와 두 형제(16~19, 22~23)

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의 모금과 관련하여 디도를 포함한 세 사람을 파견한다.

### 디도

- 바울 사도의 중간편지를 전달하는 어려운 과제를 감당했고,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영접하고 순종한 바 있었기에(고후 7:15) 이미 고린도 교회와 디도 사이에는 정서적으로도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있었다.
- 디도의 마음에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었다.
- 이 간절함은 모금이라는 일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태도이다.
-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시지 않으신다.

(8:23a) 디도로 말하면 **나의 동료요** 너희를 위한 **나의 동역자요**

## 두번째 인물 — 형제1

(8:18~19)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

- 누가? 바나바? 실라?
- 택함을 받아 = 선출된
- 선출의 목적 → 주의 영광과 사도의 원—모금—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

## 세번째 인물 — 형제2

(8:23b)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

- ‘사자’ — 사도와 같은 단어, 여기서는 고유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 ‘보냄을 받은 자’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
- 교회의 신뢰를 받는 인물
- 그리스도의 신뢰를 받는 인물 — “그리스도의 영광”

## 바울이 받았던 오해와 바울이 조심하려는 태도(8:20~21)

(8:20~21)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

- 세 사람을 보내는 이유
  - 바울 사도가 모금의 일로 인하여 고린도교회로부터 받고 있던 불필요한 오해
  -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모금을 마치라고 종용하는 바울 사도를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을 것이니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다.
- ‘거액의 연보’ — 고린도교회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과 기타 지역에서 모금된 거액이었다.
- “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함”
  - 믿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, 피차 넘어지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.
  - 모두가 죄인이며, 사도도 죄인이다.
  - 사도는 자신이 직접 돈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.

## 고린도 성도들의 회개의 진정성은 연보를 마치는데 달려있다(8:24;8:8;9:13).

(8:24)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

- 연보를 마치는 일이 바울 사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모금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, 목회적 차원에서 이 연보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.

## 미리 준비해서 연보를 마쳐야 할 이유(9:1~5)

- 급하게 하지 말라. → 준비해서 하라.
- 억지로 하지 말라. → 즐거이 하라.
- 모금액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.

## 바울의 자랑(9:2~4)

(9:2)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앞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 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pek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

- 사도의 개인적 자랑—“너희에 대한 내 자랑이 헛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.”

## 참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(9:5).

(9:5)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

참 연보의 조건—‘하나님이 받으시는’  
억지로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연보

‘연보’와 헌금

### ‘연보’(the gift)-9:5

-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라는 개념보다 사랑을 나눈다는 개념이 강하다.
- 일차적으로는 ‘축복’(blessing), 이차적으로 ‘풍성하다’(bountiful)는 의미
-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‘하나님이 (후하게) 주신 축복’으로 이해한다.
- 이 축복은 다시 (후하게)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다.
- 8장과 9장에 연보란 말이 많이 사용되지만 독특하게 여기 9:5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.
- 이외에 사용된 ‘연보’는 ‘너그러움, 후함, 성실함, 진실함’을 의미하는 단어.

### 헌금(the offering, gift)

-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(제물)의 개념—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강하다.

## 은혜의 황금 사슬(9:6~15)

-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다.
- ‘은혜의 황금사슬’

##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→ (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고)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(9:8) →

- ‘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은혜’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과 사역과 행동의 유일한 출발점이다.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은혜를 주심으로 시작하신다.
-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갚으시게 할 수 없다(롬 11:35).
-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, 인색하게 주시지 않으시며, 후하게 주신다.
-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인색한 사람이 베품에서 너그럽고 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.

(눅 6:38)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**흔들어 넘치도록**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

(약 1:5)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**후히**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



(9:6)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**많이** 심는 자는 **많이**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 
'많이'—'축복을' (9:5의 연보와 같은 단어), '후하게, 풍성하게'

(9:8) 하나님이 능히 **모든** 은혜를 너희에게 **넘치게**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**모든** 일에 **항상** **모든** 것이 **넉넉하여** **모든** 착한 일을 **넘치게** 하게 하려 하심이라

- 단어, 구들을 주목하라—이 단어와 구들은 모두 '하나님의 관대하심, 후하심'을 보여준다.
  - 8절 → 넘치게, 넉넉하여, 넘치게
  - 10절 → 풍성하게, 더하게
  - 11절 → 넉넉하여, 너그럽게
  - 12절 → 많은 감사, 넘쳤느니라
  - 13절 → 후한 연보
  - 14절 → 지극한 은혜
  - 15절 → 말할 수 없는

(9:8) 하나님이 능히 **모든** 은혜를 너희에게 **넘치게**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**모든** 일에 **항상** **모든** 것이 **넉넉하여** **모든** 착한 일을 **넘치게** 하게 하려 하심이라

-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수혜자들은 하나님처럼 관대해야 한다.
- 착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반영한다.
-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.

**(모든 일에 부요하여) 너그럽게 연보를 함(9:11) →**

(9:11) 너희가 모든 일에 **넉넉하여** **너그럽게**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

**(예루살렘)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(9:12) →**

(9:12) 이 봉사의 직무가 **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**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

**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사모하고(9:14) →**

(9:14)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**지극한**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

**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함(9:11,12) →**

(9:11,12) 너희가 모든 일에 **넉넉하여** **너그럽게**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**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** 이 봉사의 직무가 **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** 뿐 아니라 **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**

(9:15)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**하나님께 감사하노라**

**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함을 증명함(9:13) →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(9:13) →**

(9:13)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**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**



**‘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’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(9:15) →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(9:8)**

(9:15)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

**(다시)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(9:8) → → →→**

(9:8)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

**‘돈’의 신학 – 연보(관대히 나누고 베풀)와 헌금의 원리**

**감사보다 기쁨에서 나와야 참 헌금이다(9:7).**

(9:7)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

- ‘그 마음에 정한 대로’
  -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해서 마음을 먼저 정하여 드러라.
  - 충동적으로 하게 되면 시험에 들기 쉽다.
  - 그러나 ‘인색하게’ 계산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.

(9:6)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

-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. ‘많이 내는 자’가 아니라 ‘즐거 내는 자’를 사랑하신다.
- ‘즐거 내는’ 것의 의미
  - 동기의 문제
  - 감사만을 의미하지 않고,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.

**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다.**

- “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시는 일, 그리고 행하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다.”
- 연보/헌금은 우리 믿음의 참됨을 증거한다.
  - 이 믿음은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며,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셨고 지고 계시며, 지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을 드러낸다.
  - 풍성한 나눔과 넘치는 연보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.
- 베풀라는 요청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함으로써 돈과 자신에 대한 이상숭배에서 벗어나라는 요청이다.
  - 본문(고후 8~9장)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다.
  - “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(To talk about money is to talk about God).”

## 헌금은 사랑의 표현이다.

- “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흘러넘침이다.”
- 연보/헌금은 사랑의 표현이다.
  -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흘러넘침이다.
  - 자신에게 후하신 하나님, 자신의 필요를 늘 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흘러넘치면 우리는 ‘의무적으로’가 아니라 ‘기쁨으로’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.

## 오늘의 적용

- 은혜와 돈: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.
  - “주머니가 회개하기 까지 나는 그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”(존 웨슬리)
  - “목사가 돈 이야기를 하면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진다”는 생각은 돈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건드려지기 때문이다.
-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히 주시고 관대하게 베푸시는 성품을 닮게 한다.
- 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.

